

Welcome

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

저는 해외로 영어를 공부하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하지만 제 처지와는 상관없이 영어 실력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, 나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어요.

어쩌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언어적인 재능이 있거나,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일까?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.

그러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어떤 일이었을까요? 영상을 통해 들어주세요!